

마음을, 세상을,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Malgo Hyanggiropge



only practice virtue
can only make our hearts
purified and emptied.

01

2021

《맑고 향기롭게》는
가난한 절 길상사와
이 땅의
텅 빈 사람들에게
법정 스님이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차례

1. 시절 인연
새해에는 눈을 떴으면
2. 법정 스님 주시는, 선물 받아 가세요
침묵
3. 법정 스님 따라하기
좌선의 요령
4. 법정 스님 잔소리
불자의 도리
5. 불일암 구석구석
불일암 아궁이
6. 법정 스님 강추
선재동자와 함께 떠나는 선지식 여행
7. 다실에서 / 이해인 수녀의 시
새해 마음
8. 맑고 향기롭게 사는 사람들
중앙 대구 경남 광주
9. 가난한 절
길상사 소식

《맑고 향기롭게》는 이렇게 만듭니다.

법정 스님이 쓰신 글, 써 두셨던 글, 하신 말씀, 쓰던 물건을 전합니다. 덕조 스님이 간직한 법정 스님의 미발표 원고를 세상에서 처음 이곳에 신습니다. 달마다 새 글을 올려 맑고 향기롭게 활동이 더욱 활발해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법정 스님 당부를 지켜 종이를 눈곱만큼도 버리지 않는 제본, 곧 국산 아르테160그램 용지를 11번 접어서 24절 서첩으로 제작합니다. 화학품을 쓰지 않고, 화학약품 코팅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젖고 잘 찢어지고 빨리 썩습니다. 한 달 동안 세워 놓고 보고 읽고 만질 수 있습니다. 2021년 신년호는 따스하고 청정한 연꽃색을 발랐습니다. 우리 모임과 뜻을 함께 하는 지식음만드는지식 출판사가 제작 비용을 보웁니다. 월간 《맑고 향기롭게》는 꼭 할 말만 신고 돈을 아끼면서 환경을 지킵니다.

2021년 1월 1일 발행, 통권 311호, 신고번호 성북라00004호, 1999년 6월 23일 등록. 발행 편집인 / 덕조, 기획 편집 디자인 / 지식음만드는지식, 발행처 / 맑고 향기롭게 모임 주소 서울시 성북구 선잠로 5길 68(성북동 323번지) 길상사 내. 전화 02 741 4696 팩스 02 741 4698, 인쇄 / 영신사. 맑고 향기롭게 대구 모임 053 753 8883, 경남 모임 055 266 0710, 광주 모임 062 236 3129,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clean94.or.kr> 전자우편 clean94@hanmail.net. 길상사는 맑고 향기롭게 모임을 도우려고 법정 스님이 세운 절입니다. 전화 02 3672 5945 팩스 02 3672 5947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kilsangsa.or.kr> 전자우편 kilsangsa@hanmail.net



1. 시절 인연

새해에는 눈을 떴으면

이렇게 또 새해가 우리 앞에 다가선 것인가.
사실은 세월이 오가는 게 아니라,
우리들 인생이 흘러가는 것이지만……

새해에는 눈을 떴으면 좋겠습니다.
이기적인 고정 관념에 사로잡혀 같은 인간끼리
야수처럼 물고 뜯는 전쟁놀이에서
그만 눈을 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이 이 시대를 함께 살고 있는 것은
서로 핏줄고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행동으로 보여 주었으면 싶습니다.
우리들은 증오를 나누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만난 것이라고,
우리들 속마음에서 저절로 울려 나왔으면 싶습니다.

새해에는 눈을 떴으면 좋겠습니다.
기술 문명의 틈바구니에서 시들어 가는 인간의 영역이
새롭게 움텄으면 좋겠습니다.
물량의 집적만이 인간을 잘살게 하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린 이제,
밖으로 밖으로만 향하던 우리들의 시선이
안으로도 방향을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소음과 광란에 젖은 우리들의 귀를
안으로 돌려 인간의 가장 깊은 데서 울려 나오는
그 소리를 듣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에는 그만 눈을 떴으면 좋겠습니다.
뒤바뀐 가치 의식이 제자리로 회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웃이야 어떻게 되건 아랑곳없이
나만 잘살면 그만이라는 이기심이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의지해 함께 살고 있는 인간 가족임을,
본질적으로 맺어진 공동 운명체라는 것을,
이웃의 불행이나 결핍이 곧 내 자신의 그것이라는 것을
자각했으면 싶습니다.

새해에는 제발 눈을 떴으면 좋겠습니다.
날로 치솟아 비대해지고 있는 도시의 외곽에는 억울하게,
너무도 억울하게 살고 있는
인간 이하의 촌락이 있다는 사실이,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의 일에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격차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그리고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가를 제발 정신 차려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아무도 미워하지 않고 탐욕하지 않고 어리석지 않게
우리 모두가 초하루 아침의 달력처럼
싱싱하고 순수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법정 스님이 1971년에 발표했던 '새해에는 눈을 떴으면'을 2021년 판으로 손봐 올립니다. 50년이 흘렀는데도 여전히하고 성성하지요?)

2. 법정 스님 주시는, 선물 받아 가세요

1월의 선물은 '침묵'입니다.
법정 스님이 오늘을 위해 1984년에 써 두신 글입니다. 세상에 처음 선보입니다.

침묵

침묵의 의미는 단순히 입을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데 있지 않다. 침묵은 인간의 내면에 깊숙이 자리 잡은 심연을 들여다보는 일이기 때문이다. 침묵은 하나의 존재다. 그것은 우주의 언어다. 침묵을 익히는 것은 본질적인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는 일이다.

절에는 삼묵당(三默堂)이 있다. 욕실, 불당, 정량이 그것이다. 우리들이 오늘날 주고받는 말은 하나의 소음에 가깝다. 의미 없는 말을 얼마나 남발하고 있는가? 소음은 또 다른 소음을 불러일으킨다. 겨울나무들, 벌거벗은 나목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침묵이 무엇인지 실감할 수 있다.

침묵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공(空), 적(寂), 공적(空寂)이다. 공은 수냐, sujna, 인도 수학에서 영, 0을 말한다. 이 영을 바탕으로 무한한 수가 나온다.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어디론가 돌아간다는 뜻이다. 적(寂), 시적(示寂), 입적(入寂)이란 영원한 침묵의 세계로 돌아간다는 말이다. 마치 잎이 지면 뿌리로 돌아가듯. 한 사람 안에 있는 침묵은 그 인간의 현 생애를 초월한다. 무한한 과거와 미래에 걸쳐서 존재한 것임을 기억하라.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침묵, 이것은 자신의 존재를 비쳐 준다. 이 몸이 낳기 이전부터 죽은 후에도 존재할 그 침묵에 귀 기울이라.

이런 침묵에 귀 기울이는 것이 곧 선(禪)이다. 선(禪)은 침묵의 세계, 그리고 이런 침묵 안에서 발음되는 말이야말로

우리가 해야 할 인간의 언어다. 그런 말은 길지 않다. 그 밖의 말들은 모두 소음임을 알아야 한다. 인간의 말이란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어야 한다. 그리고 그런 말에는 책임이 따른다. 책임은 인간만이 질 수 있다.

여기 침묵에 대한 말씀들을 소개한다. 침묵을 사랑하고 또 한 평생 침묵의 의미를 자신의 삶으로 드러낸 사람들의 말씀들이다.

토머스 머튼은 <<관상기도>>에서 이렇게 말했다.

“비록 공동체 안에 살고 있더라도 구도자는 한 은자로서 자기 실존의 내적 황무지를 개척해야 한다.”

“침묵으로 성인들이 성장했고 침묵으로 신의 능력이 그들 안에 머물렀고, 침묵으로 우주의 신비가 그들에게 알려졌다.”

“홀로 있을수록 함께 있다. 침묵은 명상의 씨다.”

“많은 사람들이 열렬히 찾고 있지만 침묵 속에 머무는 사람만이 그것을 찾아낸다.”

“만일 그대가 진리를 사랑하거든 침묵을 사랑하라. 침묵은 햇빛처럼 그대들을 비출 것이고, 무지의 허깨비로부터 그대들을 건져 줄 것이다.”

야운 스님은 고려 말에 이렇게 말했다.

“입에 말이 적으면 어리석음이 지혜로 바뀐다.”

“입은 재앙의 문이니 엄하게 지켜라.”

삼조 승찬대사는 <신심명>에서 이렇게 말했다.

“말이 많고 생각이 많으면 점점 멀어진다. 말과 생각이 끊어지면 어느 곳엔들 통하지 않으랴.”

마하트마 간디는 이렇게 말했다.

“매주 월요일을 침묵의 날로 지켰다.”

“진리의 숭배자에게는 침묵이 정신적 훈련의 한 부분이다.”

“기도에는 말이 필요치 않다.”

부처님 말씀은 <<수타니파타>>에 이렇게 남아 있다.

“자기를 괴롭히지 않고 남을 해치지 않는 말만을 하라. 가시 돋친 말은 내 자신이나 남에게 다 같이 독이 된다.”

“사람은 태어날 때 입안에 도끼를 가지고 나온다. 어리석은 사람은 말을 함부로 함으로써 그 도끼로 자신을 찌고 만다.”

도원 선사는 이렇게 말했다.

“수도인은 말을 하려고 할 때 먼저 세 번 돌이켜 보아 자기 자신이나 남에게 이로움이 있으면 말을 하라. 그러나 자신이나 남에게 이롭지 않다면 입을 열지 말라.”

페르시아 격언에는 이런 말이 있다.

“총에 맞은 상처는 나을 수 있지만 사람의 입으로 입은 상처는 절대로 아물지 않는다.”

다시 침묵의 의미로 돌아가 보자. 침묵은 하나의 존재다. 무한한 과거에서 끝없는 미래로 이어지는 그런 존재다. 텅 빈 그 안에서 메아리가 울려 나온다. 그 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선의 세계로 들어가라.

없음이 있음을 보라.

眞空妙有

진공묘유

3. 법정 스님 따라 하기

2021년 1월, 맑고 향기롭게 사는 사람들의 법정 스님 따라하기는 좌선입니다. 좌선은 선의 방법입니다. 선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더 말할 필요가 없겠지요? 그런데 쉽지 않나요? 그렇다면 법정 스님의 좌선법을 따라 해 보세요. 남송(南宋)의 자각 대사(慈覺大師)의 좌선 방법(坐禪儀)을 쉽게 옮겨 우리에게 전해 주십니다. ‘내 한 몸만을 위해 해탈을 구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도 잊지 않으시고, 역시 우리 스님이네요. 1973년에 옮겨 두신 글입니다. 세상에 처음 선보입니다.

좌선의 요령

장로 종적 지음, 법정 옮김

자세

지혜를 배우는 사람들은 먼저 큰 자비심을 일으키고 넓은 서원을 발하여 정미롭게 삼매를 닦아야 한다. 중생을 제도하고자 서원하고 내 한 몸만을 위해 해탈을 구해서는 안 된다. 모든 인연을 놓아버리고 만사를 쉬어 몸과 마음이 하나 같고 움직이고 고요함에 틈이 없어야 한다. 음식의 양을 헤아려 너무 배부르거나 배고프지 않게 하고 잠을 조절하여 모자라거나 지나치게 하지 않는다.

좌선을 할 때에는 고요한 곳에서 두터운 방석을 깔고 하라. 허리띠는 느슨하게 매고 몸가짐을 단정히 한 후에 결가부좌를 한다. 바른쪽 발을 왼쪽 넓적다리 위에 놓고 왼쪽 발을 바른쪽 넓적다리 위에 놓는다. 반가부좌를 하는 것도 무방하다. 이때는 왼쪽 발로 바른쪽 발을 누르도록 한다.

다음으로 바른쪽 손을 왼쪽 발 위에 놓고 왼쪽 손등을 바른쪽 손바닥 위에 놓는다. 두 엄지손가락 끝을 서로 맞대고 서서히 허리를 편 다음 전후좌우로 몇번 움직여 몸을 바르게 하고 단정히 앉는다. 왼쪽으로 기울거나 바른쪽으로 기울거나 앞으로 구부리거나 뒤로 넘어가게 하지 말고 허리와 척추, 머리와 목을 똑바로 세워 그 모양이 부처님 사리탑과

같이 한다. 이때 몸을 너무 긴장시켜 호흡을 부자연스럽게 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귀와 어깨는 가지런히 하고 코와 배꼽을 일직선 상에 두며 혀는 입천장에 대고 입은 다문다. 눈은 반만 떠서 졸음에 빠지지 않도록 한다. 이와 같이 하여 선정(禪定)을 얻으면 그 힘이 크게 넘칠 것이다.

눈을 감지 말라

옛날 선정을 닦던 스님들은 앉아서 항상 눈을 떴으며 법운 원통 선사도 눈을 감고 좌선하는 사람들을 꾸짖기를 “깜깜한 산의 귀신굴이 된다”고 하였다. 여기 깊은 뜻이 있으니 통달한 사람은 알 것이다. 자세가 안정되고 호흡이 조절된 다음에는 아랫배에 지그시 힘을 주고 일체의 선악을 생각하지 말라. 잡념이 일어나면 거기에서 곧 깨어날 것이니 깨어나면 곧 사라질 것이다. 오래도록 인연을 잊으면 저절로 조금 이루어질 것이니 이것이 좌선의 요긴한 비법이다.

안락의 법문

곰곰히 생각하면 좌선은 안락의 법문이지만 사람들이 흔히 병을 얻는 것은 모두 마음을 잘못 쓰기 때문이다. 이 뜻을 잘 터득하면 자연히 온몸이 편안하고 정신이 상쾌해질 것이다. 바른 생각이 분명하고 법의 맛이 정신을 도와 고요하다. 맑은 기쁨을 누릴 것이다. 한번 밝게 된 사람이라면 용이 물을 얻은 것 같고 호랑이가 산을 의지한 것과 같을 것이다. 아직 밝게 되지 못한 사람은 바람에 의해서만 불을 일으키려는 것과 같아서 그 힘이 달릴 것이다. 즐거운 마음으로 판단하고 절대로 서로 속이지 말라.

도가 높아지면 마가 성하는 법이어서 역경과 순탄함이 만가지나 된다. 그러나 바른 생각이 나타나면 그 어떤 것에도 거리끼지 않을 것이다. 《능엄경》과 《천태지관》과 규봉의 《수증의》에 악마의 일을 두루 밝혀, 헤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예비해 두었으니 반드시 알아 두라.

좌선이 끝났을 때

좌선이 끝나 일어설 때에는 천천히 몸을 움직인 후에 편안히 일어나야 한다.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말라. 좌선에서 일어난 뒤에는 어느 때나 항상 좌선의 방법에 의하여 선정의 힘을 보호하고 유지하기를 어린애 돌보듯 하라. 그러면 선정의 힘을 쉽게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이 선정의 한 문이 가장 급한 일이다. 만약 선정을 잘 이루지 못하면 여기에서도 모든 것이 망망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구슬을 찾으려면 물결이 가라앉아야 한다. 물결이 일렁이면 찾기 어렵다. 물결이 가라앉아 맑고 깨끗해지면 마음의 구슬이 저절로 나타난다.

《원각경》에 이르기를 “거리낌 없는 청정한 지혜가 다 선정에서 나온다”고 하였고 《법화경》에서는 “고요한 곳에서 마음을 닦고 편안히 머물러 움직이지 않기를 수미산처럼 하라”고 하였다.

범부와 성인을 뛰어넘으려면 반드시 반연을 고요히 하고 좌탈입망, 곧 앉아서 가고 서서 가려면 선정의 힘에 의지해야 한다. 한평생 힘을 기울여도 오히려 잘못될까 두려운데 하물며 게을러서야 어떻게 생사의 업을 막아 내겠는가.

그러므로 옛사람이 이르기를 “만약 선정의 힘이 없으면 죽음의 문에 굴복당하고 눈앞이 캄캄하여 갈팡질팡 헤매게 된다”고 하였다. 바라건대 모든 참선하는 벗들은 이 글을 거듭거듭 읽고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롭게 하여 다 같이 바른 깨달음을 이룰지어다.

* 장로 종적(長蘆 宗蹟)

송나라 시대의 스님이다. 운문종의 수행자이며 법운법수에게 출가하여 장로옹부의 법을 이었다. 1102~1105년에 진정부(하북성) 흥제선원과 장로사에 머물렀다. 《선원청규》(10권)는 흥제선원 주지 때에 썼다. 정토사상가로도 알려져 있으며 <관념불송>, <근침선입검수정토>의 저술이 있다. 시호는 자각 대사.

4. 법정 스님 잔소리

게으르고 눈 어둔 불자들을 깨우고 다그치는 법정 스님 말씀, 그 잔소리가 이젠 그리워집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스님 잔소리는 1984년에 써 두신 당부 말씀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마음 닦는 일에 게으름 피우지 말라고 보조 스님까지 모셔 놓고 잔소리를 하십니다. 세상에 처음 선보이는 스님 말씀입니다.

불자의 도리

어지러운 세상일수록 제 정신을 똑바로 차릴 줄 알아야 한다. 제 정신을 차리려면 자기 마음을 찾고 닦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사람들은 자기 집 문단속은 잘하면서도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자기 마음은 단속할 줄 모르는 것 같다.

불자란 마음을 찾고 닦는 사람이다. 마음을 마음 밖에서 구하지 말라.

800년 전에 이 땅에서 수행한 보조 스님은 《수심결》에서 이렇게 말했다.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부처를 찾아야 한다. 부처란 곧 이 마음인데, 마음을 어찌 먼 데서 찾으려고 하는가?”

요즘 사람들은 옛사람보다 영리한 듯하지만 사실은 어리석어서 자기 마음이 참 부처인 줄 알지 못하고 자기 성품이 참 법인 줄을 모르고 있다. 그래서 법을 저 멀리 있는 성인들한테서만 구하려 하고 부처를 찾고자 하면서도 자기 마음을 살피지 않는다.

만약 마음 밖에 부처가 있고 성품 밖에 따로 법이 있다고 고집하며 불법을 구한다면 이런 사람은 억만 년을 지내어도 불법은 꿈에도 보지 못할 것이다. 문으로 들어온 것은 집 안의 보배가 아니라고 했다. 자기 마음을 알면, 끝없는 법문과 한량없는 진리를 저절로 얻게 될 것이다.

그럼 그 마음, 내 마음을 어디서 찾아 닦을 것인가?

순간순간 하는 일과 만나는 사람들한테서 찾고 닦아야 한다. 그래서 옛사람은 ‘이웃은 곧 내 복밭’이라고 했다. 시장 보는 일, 전화하는 일이 모두 사람을 만나는 일이다. 바로 나의 복이 자라고 있는 복밭이다.

달마 스님은 <관심론>에서 이렇게 말했다. “마음을 살피는 이 한 가지 법이 모든 행동을 다 거두어들인다.”

마음이란 모든 것의 근본, 곧 뿌리이므로 모든 현상은 순전히 마음에서 일어난 것이다. 천당과 지옥도 이 마음에서, 행복과 불행, 선과 악도 이 마음에서 일어난다. 그래서 한 마음 먹는 것, 곧 한 생각이 중요하다.

임제 스님의 말씀이 《임제록》에 이렇게 남아 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부처를 구한다면 그는 부처를 잃을 것이다. 누가 도를 구한다면 그는 도를 잃을 것이다. 누가 조사, 큰 스님을 찾는다면 그는 조사를 잃을 것이다.”

임제 스님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을 제쳐 두고 어째서 따로 부처와 도와 큰 스님을 찾는가를 묻고 있는 것이다.

마음을 똑바로 찾고 올바르게 닦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마음이 가난해야 한다.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마음이 맑고 무디지 않다는 말이다. 분수 밖의 탐욕을 부리지 않는다는 말이다. 사람은 적게 가질수록 마음이 가벼워진다. 많이 가지면 그것이 우리 밝은 마음을 가린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어두워진다.

둘째 집착에서 벗어나야 한다. 집착이 있으면 도에 들어갈 수 없다. 집착은 집착의 대상에 자신을 얽어매는 일이다. 결국 나를 속박하게 된다. 그러니 무엇을 하든 그것을 하되 얽매이지는 말아야 한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므로 늘 정진이 필요하다.

셋째 서원이 있어야 한다. 광명보살이 1000명 환자를 목욕시킨 일을 생각하라.

불자의 살림살이

불자의 생활은 순간순간, 하루하루 사는 일이 곧 마음 닦는 일이에요 불자의 살림살이이다. 중생들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건지는 것인지 부처가 우리를 건져 주는 것은 아니다. 내가 못된 짓을 하면 저절로 더러워지고 착한 일을 하면 저절로 맑아진다. 깨끗하고 더러운 것은 내게 달린 것, 나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나를 깨끗하게, 더럽게 할 수 없다. 그러니

나쁜 생활 습관이 있으면 지금부터라도 고쳐야 한다. 보조 스님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 심성, 곧 마음의 바탕은 물뚝이 없어서 본래 저절로 원만하게 이루어진 것이니, 다만 그릇된 인연을 여의면 뒤틀린 부처니라.” 나무가 바르게 자라게 하기 위해 곁가지를 쳐 내듯 우리 생활에서도 쳐 내야 할 것은 쳐 내야 바른 마음을 지킬 수 있다. 본래부터 천진한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이 제일가는 정진이다.

5. 불일암 구석구석



사진 덕조

불일암 아궁이

머리에 불 붙은 사람이 물을 찾아 내달리듯 수행자는 진리를 향해 직진해야 한다고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법정 스님의 행자 시절 소임이 부목(負木). 하루 석 짐씩 나무를 하고 아궁이마다 불을 지폈습니다. 그랬는데도 불일암 아궁이는 만만치 않았습니다. 연기와 불길의 역류해 검댕을 뒤집어쓰는 일은 셀 수도 없었고 큰비라도 내리면 솟는 물 퍼내느라 밤을 꼬박 새웠

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퍼내도 퍼내도 그치지 않던 물이 가만히 놓아두니 더 이상 차오르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물이 물을 조절한 것이지요. 오늘도 불일암 아궁이는 활활 타오릅니다. 진리를 향해 직진하던 법정 스님의 옷자락처럼 불길은 구들 깊은 곳으로 쭉쭉 잘 들어갑니다. 그래도 방 안은 15도씨. 겨울 한 철 하루를 지내다 보면 어깨엔 힘이 들어가 천근만근. 그래도 삼매는 끝없이 깊어가고 마음은 텅 빈 충만입니다.

6. 법정 스님 강추, 선재동자와 함께 떠나는 선지식 여행

법정스님이 20대 후반이던 시절, 그러니까 1950년대의 어느날이었습니다. 스님은 해인사 강원에서 《화엄경》을 만납니다. 그리고는 “광대하고 무한한 그 구성과 규모에 압도”당합니다. “보살의 존재와 그 원과 행의 지극함”을 보면서 불교의 참모습을 절실하게 느낍니다. 그 가운데서도 스님을 꼼짝 못하게 만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선지식을 찾아 천하를 헤매면서 법을 위해 몸을 내던지는 선재동자의 간절한 구도 정신, 스님은 그때 “자신의 안일하고 나태한 현 존재를 되돌아”보았다고 고백합니다.

《맑고 향기롭게》가 2021년 1월부터 시작하는 <법정 스님 강추, 선재동자와 함께 떠나는 선지식 여행>은 안일하고 나태한 자신의 현 존재로부터 첫발을 떼 보살의 존재와 그 원과 행의 지극함을 체험하는 긴 여로입니다. “선재동자가 53인의 선지식을 차례로 찾아가 그때마다 새로운 눈을 뜨게 되는 간절한 구도 행각”,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합니다. 오늘을 위해 법정 스님은 오래전에 선재동자 이야기, <입법계품>을 읽기 쉬운 우리말로 옮겨 놓으셨습니다. 이제 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스님 늘 말씀하시던 대로 지금 바로, 여기서 직진입니다.

여행을 시작하면서, 법정 스님 당부 말씀

<선재동자와 함께 떠나는 선지식 여행>에 동참하신 맑고 향기롭게 모임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가 함께할 여행은 육체의 여행이 아니라 마음의 여행입니다. 《화엄경》의 <입법계품>은 선재동자가 53인의 선지식을 차례로 찾아가 그때마다 새로운 눈을 뜨게 되는 간절한 구도 행각을 기록한 경전입니다. 또한 입법계품은 인간의 삶에서 스승의 존재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선지식은 바른길을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본질적인 자아에 눈을 뜨게 해 줍니다. <입법계품>에 등장하는 53인의 선지식의 직업을 살펴보면 무릇 뱃사공, 부호, 현

자. 바라문, 이교도, 왕, 도량신, 천(天), 주야신, 선인 비구, 비구니, 동남 동녀와 심지어는 매춘부까지 있습니다. 더욱이 53인 가운데 여성이 20인이자 됩니다. 여기서 부처님 제자 가운데 마하가섭이나 사리불 또는 목건련 같은 뛰어난 제자들을 제쳐 두고, 한낱 이름 없는 뱃사공에 이교도, 창녀 같은 사람들을 선지식으로 등장시켰다는 점에 유의해야겠습니다. 부처님은 왜 우리에게 이들을 만나 보라 권하신 것일까요? 진리를 탐구하고 구현하는 구도의 길에서는 사회적인 신분이나 지위를 물을 것 없이, 자신이 업으로 하고 있는 그 길에 통달한 사람이면 누구나 스승이 될 수 있다는 뜻을 전한 것이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여행의 길은 이렇게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가 끝은 아닙니다. 선지식은 앉은자리에서 그저 만나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몸소 보리심을 발해 찾아나설 때 비로소 만날 수 있습니다. 선지식은 메아리라도 같아서 내 부름에 대한 응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여로는 선재동자의 구도 행각을 뒤쫓는 것입니다. 그의 구도 행각이야말로 오늘날 우리들이 추구해야 할 삶의 지표이자 최고의 가치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51번째 선지식으로 미륵보살을 찾아가 보살행에 꼭 갖추어야 할 마음의 준비가 무엇인가고 묻자, 미륵보살은 때 묻지 않은 진심(真心)과 지혜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보리심(菩提心)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리심은 모든 부처님의 종자이니 모든 부처님의 법을 낳게 하기 때문이다. 보리심은 대지이니, 이 세상을 받쳐 주기 때문이다. 보리심은 맑은 물이니. 온갖 번뇌의 고통을 씻어 주기 때문이다. 보리심은 큰 바람이니, 그 어떤 것에도 거리낌이 없기 때문이다.

보리심은 타오르는 불이니.
온갖 사된 소견과 애욕을 태워 버리기 때문이다.
보리심은 맑은 햇살이니,
모든 중생을 남김없이 비추기 때문이다.
보리심은 맑은 눈이니,
바르고 그릇된 길을 낱알이 가려 보기 때문이다.
보리심은 문이니,
모든 보살의 행에 들어가게 하기 때문이다.
보리심은 인자한 어머니이니,
보살들을 기르고 감싸 주기 때문이다.
보리심은 큰 바다이니,
온갖 공덕을 다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보리심은 이와 같이 한량없는 공덕을 성취해 불·보살의 공덕과도 같으니,
보리심에 의해 보살의 행이 열리고 삼세의 부처님들이 깨달음을 이루기 때문이다.”

우리가 경전을 읽는 뜻은 옛 거울에 오늘의 자신을 비추어 봄으로써 일상적인 타성에서 벗어나 새로운 자신을 형성해 나가는 데 있습니다. 고전을 통해 우리는 눈이 번쩍 뜨이고 고개가 끄덕여지는 귀한 가르침을 만납니다. 우리가 앞으로 함께하고 만나게 될 선재동자와 보살을 경전에 등장하는 과거의 특정 인물로 보아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의 자리에 오늘 우리들 스스로의 모습을 대입해 보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있음과 서야 할 자리를 되찾는 것이 이 여행의 목적입니다. 한시도 지체하지 말고 지금 바로 출발합시다.

(이 글은 법정 스님이 쓰신 글, <선재동자의 간절한 마음을 따라>를 바탕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7. 다실에서 / 이해인 수녀의 시

법정 스님을 생각하면서 이해인 수녀님이 시를 보내 주셨습니다. 곱게 설빔 차려입고 나의 마음과 어깨 동무하고 새길을 함께 걷자고 하십니다.

불일암 다실에 앉아 차향과 함께 시를 음미하는 시간, 새소리, 물소리, 바람 소리 들리시나요?

새해 마음

늘 나에게 있는
새로운 마음이지만
오늘은 이 마음에
색동옷 입혀
새해 마음이라 이름 붙여 줍니다

일 년 내내
이웃에게 복을 빌어 주며
행복을 손짓하는
따듯한 마음

작은 일에도 고마워하며
감동의 웃음을
꽃으로 피워 내는
밝은 마음

내가 바라는 것을
남에게 먼저 배려하고
먼저 사랑할 줄 아는
넓은 마음

다시 오는 시간들을
잘 관리하고 정성을 다하는
성실한 마음

실수하고 넘어져도
언제나 희망으로
다시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겸손한 마음

곱게 설빔 차려입은
나의 마음과 어깨동무하고
새롭게 길을 가니
새롭게 행복합니다.

8. 맑고 향기롭게 사는 사람들

중앙 모임 소식 (02-741-4696)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

회원님의 정성스러운 후원에 감사드리며,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 대상 2020년 1월 1일~2020년 12월 31일까지 중앙모임에 기부자명,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 후원 회원

기부금 영수증 발급 방법 1.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이용 2. 맑고 향기롭게 홈페이지에서 후원 내역 확인 및 출력 가능 3. 사무국으로 우편 발송 요청

발급 기준 및 유의 사항 본인 명의로만 발급 가능. 간혹 익명으로 후원하신 경우 후원 내역이 불일치할 수 있으니, 문의 사항이 있으면 사무국으로 전화주세요.(02-741-4696/총무팀)

중앙 모임의 활동들

길상사 창건 23주년 기념 법회 원만회향 지난해 12월 13일(일)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 길상사 창건 23주년을 축하하는 기념 법회를 간소하지만 여법하게 봉행했습니다. 길상사 주지 스님은 법정 어른스님께서 생전 길상사를 창건하신 정신과 의미를 되새기고, 길상화 보살님의 무주상보시의 깊은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코로나19로 인해 혼탁한 세상에서 맑고 향기로운 도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하였습니다.

소외된 이웃들에게 연말 김장 전달 연말을 맞아 지난해 11월 26일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독거노인, 장애인 가정, 쪽방촌)에게 자비의 김장을 나누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와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한 감염 예방을 위해 지난해 3월부터 결연을 맺어 김치를 납품받고 있는 농가식품(인천김치절임류가공사업협동조합)에서 순수 국내산 농산물을 사용해 만든 김장을 구매하여 460여 가정에 각 10kg씩 전달했습니다. 많은 분들의 후원금으로 전달된 김장김치가 힘겹게 살아가는 분들에게 울겨울 작은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

'향기소리' 신생아 살리기 모자 뜨기 봉사 신생아 모자 뜨기는 국제구호개발NGO단체 세이브 더 칠드런이 신생아 살리기를 위해 하는 캠페인 중 하나입니다. 참여자가 직접 모자를 떠서 완성품을 보내면 이 모자가 필요한 신생아에게 전달되는 봉사 활동입니다. 중앙 모임은 국제구호 활동으로 신생아 모자 뜨기 모임(모임명 : 향기소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집에서 할 수 있는 비대면 국제 구호 활동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세요.

맑고 향기롭게 2021년도 달력 발송 중앙 모임을 비롯해 각 지역 모임

에서는 지난해 10월 말 기준으로 연간 최소 3만 원 이상 후원한 회원에게 새해 탁상달력을 12월 초에 발송했습니다. 지난해 10월 말까지 후원이 없고 11월에서 12월 말에 3만 원 이상 후원한 회원에게는 2021년 1월 중순에 탁상달력을 발송합니다. 혹시 본 모임에 후원을 하면서도 개인 사유로 우편물 수신 거부한 회원이나, 주소 이전 등으로 달력을 받지 못한 경우 사무국으로 전화하면 조치하겠습니다. 벽걸이 달력은 길상사에서 제작하여 길상사 중무실에서 수시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1월 중앙 모임 정기 활동 안내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소식지 우편 발송 자원 활동 : 5일(화)/오전 10시~12시/세계일화실

필사모임(법정 스님 저서 읽기) : 매주 화요일/세계일화실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맑고 향기로운 반찬 나눔 자원 활동 :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오후 12시/맑고 향기롭게 조리장/코로나19로 인해 일정이 조정될 수 있으니 문의 후 참여해주세요.

서울노인복지센터 점심 무료 급식 자원 활동 : 매주 월요일/오전 10시~오후 2시/코로나19로 인해 일정이 조정될 수 있으니 문의 후 참여해주세요.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의류 재활용 봉사 모임 : 코로나19로 인해 활동을 잠정 중단 중입니다.

생태 사찰 가꾸기 모임 : 매주 월, 목요일/길상사 경내

정기 재정 후원 시각장애인 호송 단체 '부름의 전화' 정기 후원. 서울 지방 변호사협회 결연 청소년 지원. 인도 다람살라 잠양(jamyang) 비구니 스님 학교 후원

대구 모임 소식 (053-753-8883)

봉사 활동 홀로 어르신 밑반찬 조리, 배달 및 말벗 나눔 : 매주 수요일 / 음식 조리 활동(10시~13시), 배달 및 말벗 활동(19시~21시)

연꽃 피는 집(치매노인 요양 시설) 정기 방문 자원봉사 활동 : 매월 셋째 화요일 / 대구은행 본점 앞 9시 출발 / 목욕, 식사 도움, 빨래 정리, 말벗

청도 운문사 봉사 : 매월 둘째 주 금요일 / 대구은행 본점 앞 9시 집결, 출발 / 공양 준비 및 공양재료 다듬기, 청소 등

모임 대구 모임 : 3층 '시민서로배움터' 비정기 강좌 개최

법정 스님 책 읽기 모임 : 매월 셋째 주 금요일 저녁 7시

지원 사업 햇살청소년지원사업 : 가정 폭력, 성폭력 피해 가정에 물품 및 문화정서 지원 프로그램

정기 자원 활동가 모집 <맑고 향기롭게>(소식지) 발송 : 매월 초 정기 봉사활동 및 사육 청소 봉사자 수시 모집

경남 모임 소식 (055-266-0170)

봉사 활동 보현행원 : 무료 노인 요양원으로 매월 셋째 수요일 말벗 및 빨래 노력 봉사/오전 9시 30분 사무국 출발

사파복지회관 : 무료 급식소(자비 공양의 집), 매월 넷째 주 화요일과 매주 토요일에 점심 준비 및 설거지, 배식 봉사/오전 10시~오후 2시

해 뜨는 교실 : 봉림청소년문화의집, 저소득층 공부방으로 매월 첫째 목요일 오후 5시 학습 지도 및 간식 지원/초등·중등 40명 지원

천연 화장품 만들기 모임 : 매월 첫째, 둘째 금요일 진행/오후 1시 30분/사무국

친환경 수세미 나누기 : 매월 둘째 화요일 모임 및 친환경 수세미 판매

위안부 할머니 지원 활동 : 지역 내 홀로 생활하시는 위안부 할머니 찾아 뵙기 및 지원 활동

모임 선수련 모임 : 매주 금요일 저녁 7시/열린 법당 '마하연'

회원 만남의 날 : 매월 넷째 수요일 오전 11시/사무국

후원 활동 결연 가정 후원 : 월 생활비 지원, 밑반찬 및 김장김치 나누기/매월 둘째, 넷째 목요일 오후 4시/명절 및 가정의 달 세대 방문 성금 및 생필품 전달

장학금 후원 : 결연 세대 청소년 장학금 지원

정기 자원 활동가 모집 정기 후원자 및 자원 활동가 수시 모집

광주 모임 소식 (062-236-3129)

봉사 활동 점심 공양 나눔 :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고령, 저소득, 독거 어르신을 대상으로 천 원의 밥상(점심) 운영/오전 9시 30분~오후 2시/봉사자 및 후원자 모집(김치 담그기/매주 토요일 공양 나눔 센터)

자비의 도시락 나눔 활동 :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 가장 세대를 위한 도시락 나눔

장터 및 바자회 운영 : 회원 및 이웃 대상으로 생필품 교환, 기증 헌옷 판매, 농산물 직거래, 친환경 제품 판매

쓰레기 줄기 캠페인 : 연중 회원 및 봉사자들과 주변 환경 및 사찰 주변 쓰레기 줄기 캠페인 전개

천연 화장품 만들기 : 매주 월요일 오후 2시/천연 세숫비누, 빨랫비누, 천연 화장품

모임 독서 모임 : 법정 스님의 저서를 매월 선정하여 읽고 회원들과 함께 교류/매월 둘째 수요일/사무국

노래 모임 : 건전가요, 명곡 노래 교실

후원 활동 장학 사업 : 가정환경이 어려운 고등학생을 선발하여 3년간 학비 지원

정기 자원 활동가 모집 정기 후원자 및 자원 활동가 수시 모집

9. 가난한 절

길상사 소식 (02)3672-5945/전송:(02)3672-5947

신정 합동 차례 일시 : 1월 1일(금) 오전 9시 50분, 장소 : 극락전

지장재일 일시 : 1월 1일(금) 오전 9시 50분, 장소 : 지장전

천수다라니 33독 3년 기도 일시 : 1월 2일(토) 오후 6시~8시30분, 장소 : 극락전. 한 가지 소원의 성취를 일념으로 발원하고 신묘장구대다라니를 독송하면 관세음보살의 가피력으로 원하는 바가 속속성취되는 영험한 기도가 천수다라니 기도입니다. 개인 축원입니다. 공양물(떡, 꽃, 쌀 등) 설판 받습니다.

관음재일 일시 : 1월 7일(목) 오전 9시 50분, 장소 : 극락전. 매달 관음재일에는 인등 접수자 축원이 있습니다.

초하루 기도 및 법회 일시 : 1월 13일(수) 오전 9시 50분, 장소 : 극락전

성도재일 일시 : 1월 20일(수) 오전 9시 50분, 장소 : 극락전

성도재일 철야 기도 일시 : 1월 19일(화) 오후 9시~1월 20일(수) 오전 4시, 장소 : 극락전

보름 기도 일시 : 1월 27일(수) 오전 9시 50분, 장소 : 극락전

지장재일 일시 : 1월 30일(토) 오전 9시 50분, 장소 : 지장전

설 합동 차례 일시 : 2월 12일(금) 오전 9시 50분, 장소 : 극락전(접수번호 1~600), 설법전(접수번호 601부터)

입춘 기도 및 삼재 소멸 기도 일시 : 2월 1일(월) 오전 9시 50분~2월 3일(수) 오전 9시 50분, 장소 : 극락전

정초 기도 일시 : 2월 14일(일)~2월 20일(토) 오전 9시 50분, 금강경 독송 정초 칠일 기도 : 오후 2시, 장소 : 극락전

1월 길상사 정기법회·기도

기도명/법회	날짜	시간	장소
신정 합동 차례	1월 1일	9시 50분	극락전
지장재일	1월 1일	오전 9시 50분	지장전
다라니 기도	1월 2일	오후 6시~8시 30분	극락전
관음재일	1월 7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
보름 기도	1월 27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
지장재일	1월 30일	오전 9시 50분	지장전
설(구정) 합동 차례	2월 12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
극락전 기도	매일	새벽 4시 오전 9시 50분 / 오후 6시	극락전
지장전 기도	매일	새벽 4시 40분 오전 9시 50분 / 오후 6시	지장전

일요 가족 법회, 청년회 법회, 중·고등 법회, 어린이 법회, 새신도 교육 일정은 코로나19로 인해 변동될 수 있으므로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맑고 향기롭게 후원 및 소득공제 안내

(사)맑고 향기롭게는 우리 마음과 세상 그리고 자연을 두루 맑고 향기롭게 가꾸며 살려는 이들의 순수 시민 단체로서 100% 회원들의 재정 후원에 힘입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본 모임은 회원 개개인이 자신과의 약속으로 정기·비정기 후원, 후원 금액 결정, 후원 방법 선택(CMS, 온라인, 지로)까지 스스로 합니다. 회원으로 가입하면 활동 소식을 비롯하여 법정 스님의 글과 삶의 지혜가 담긴 알차고 유익한 월간지 <맑고 향기롭게>를 정기적으로 받아 볼 수 있습니다.

간편한 CMS 후원 금융결제원의 중개를 통해 후원자님의 계좌에서 후원금을 인출하여 본 모임으로 입금되는 방식으로서 은행을 직접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없습니다. 사무국으로 직접 방문하거나 혹은 본 모임 홈페이지에서 CMS 후원 가입을 신청하면 됩니다.

온라인 자동이체 후원 후원자님이 원하시는 일자에 매월 일정 금액이 본 모임으로 입금되도록 하는 후원 방법으로서 주민등록증, 통장, 도장을 지참하고 직접 은행을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후원 금액 변동이나 중단 시에는 신청한 은행에 직접 가야 합니다.

지로 후원 가장 전통적인 방법으로 우편 배송되는 지로 용지나 지로 번호를 통해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본 모임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지로 번호로 은행에 가지 않고도 인터넷(www.giro.or.kr)에 접속하여 직접 납부할 수 있습니다. (지로 번호 : 7618372)

정기 후원·회원 가입

(사)맑고 향기롭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후원 회원 등록하거나 (사)맑고 향기롭게 사무국에 방문하여 가입서 작성하면 됩니다.

온라인 자동이체 후원 계좌

중앙 모임 02-741-4696

일반 사업 후원 계좌 : 국민 817-01-0253-129
KEB하나 201-890400-87705
농협 029-01-199412

결식이웃 후원 계좌 : 국민 817-01-0255-458

장학금 후원 계좌 : KEB하나 220-890015-10204

대구 모임 053-753-8883 후원 계좌 : 대구 002-05-016277-8

경남 모임 055-266-0170 후원 계좌 : 농협 932-01-002933

광주 모임 062-236-3129 후원 계좌 : 농협 355-0018-7812-13

본회는 종교 법인으로 인가되어 후원 금액은 연말정산시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의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직접 자동이체를 신청한 경우에는 (사)맑고 향기롭게 각 지부 사무국으로 전화하여 회원 등록 절차를 진행해야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